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SUBIC에 위치한 어학원이었다. 어학원의 규모는 5층짜리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강의실과 기숙사, 식당, 수영장이 함께 있어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 없이 좋았다. 어학원 내에는 외국인 선생님을 비롯하여 경비원과 순천향대 학생을 제외한 다른 개인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선생님들은 5시에 퇴근을 하지만 몇몇 남아있는 선생님들과 따로 개인적으로 온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도 함께 있었기에 어학원은 대체로 활발한 분위기이다.
수업	기본 하루 8시간으로 4시간은 그룹수업, 4시간은 일대일 수업으로 구성된다. 그룹수업은 토익speaking, 멀티미디어, 토론(?), 그리고 일대일 수업은 단어, 속어, 회화 등으로 나뉘지는데, 이렇게 그룹과 선생님이 나누어 지기에 앞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성적과 시간표에 맞게 배정이 된다. 물론 그룹이나 선생님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첫 주에 바꿀 수 있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아서 그런지, 서툰 영어실력을 되도록 교정해주려고 많이 애써주셨고 유쾌한 선생님들 덕분에 한 시간, 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편이었다. 숙제를 내주는 경우는 선생님마다 경우가 다른데, 숙제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내주지는 않고 가벼운 정도로만 낸다. 수업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냥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수업이었으며, 거기에서 무겁지 않게 영어를 익힐 수 있었다. 수업 시작 전에 가볍게 어제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나눴던 대화가 정말 영어 회화처럼 다가오는 것 같았다.

Activity	-요트클럽 : 요트를 타고 바다로 가서 다이빙 및 수영을 한다. 사진 찍기가 좋았고, 다이빙과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수영복을 챙기는 게 좋다. 바다가 까맣고 깊어서 '설마 바다에 들어가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물놀이를 했다. -크리스마스 트리탑 어드벤처 :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어학원 바로 옆에 있는 트리탑 어드벤처에 가서 체험을 했는데, 자율적인 활동이었다.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랐고, 편한복장을 하는게 좋다. -마닐라투어 : 그룹을 나눠서 마닐라에 가서 미션을 수행하며 투어하는 것이었는데, 어학원 근처와 달리 공기가 매우 안좋았다.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다. 그리고 mall of Asia라는 가장 큰 백화점을 가기 때문에 쇼핑을 할 생각이라면 여분의 돈을 챙기는 것이 좋다. -새해 불꽃놀이 : 자율적인 활동으로 불꽃놀이를 보러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여유있게 해서 가는 것이 좋다. -카마얀 비치 : 자율적인 활동으로 수족관과 카마얀 비치를 갔다. 수족관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카마얀 비치만 갔는데, 바다 입장료가 500페소였다. 돈을 내고 바다를 봐야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고, 액티비티도 다양하다. 수영복을 챙기는게 좋다. -안바야코브 : 수영장과 바다, 리조트가 함께 있는 곳인데,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수영하기도 좋다. 하지만 수영복 규제가 엄격하니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정말 수영복을 챙겨야한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하다. 낮은 한국의 여름날씨랑 비슷하며, 조금 더 습하다. 하지만 밤은 살짝 선선하기 때문에 긴 옷을 챙겨야했다. 그리고 어학원 내에 에어컨이 너무 잘 작동되기 때문에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다.

안전	어학원 부근은 정말 안전하다. 어딜 가던 경찰이 있으며, 현지 사람들도 안전하다. 다만 벌레를 조심해야할 듯 하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3인 1실로 룸메이트들과 더욱 돈독해지기 좋다. 다음날 수업여부에 따라 10시, 12시로 통금이 있었으며, 술 반입은 절대 안된다. 항상 외출할 때는 학생증을 맡기고 나가야 했으며 들어올 때는 가방검사를 철저하게 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외부식당(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은 학교식당, 그리고 저녁은 주로 나가서 사먹었다. 어학원 내에 식당에는 한식이 나오는데 맛있었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과일을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교통은 FB나 택시를 주로 이용했는데, FB는 저렴하게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택시는 4명-8명 정도 이용할 때 많이 이용했다. 가격은 택시가 조금 더 비싸지만, 여럿이서 타면 FB 두배 정도로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40,000	출국 시 600페소 포함
추가 출금	70,000	쇼핑
추가 카드지출	80,000	쇼핑
합계	55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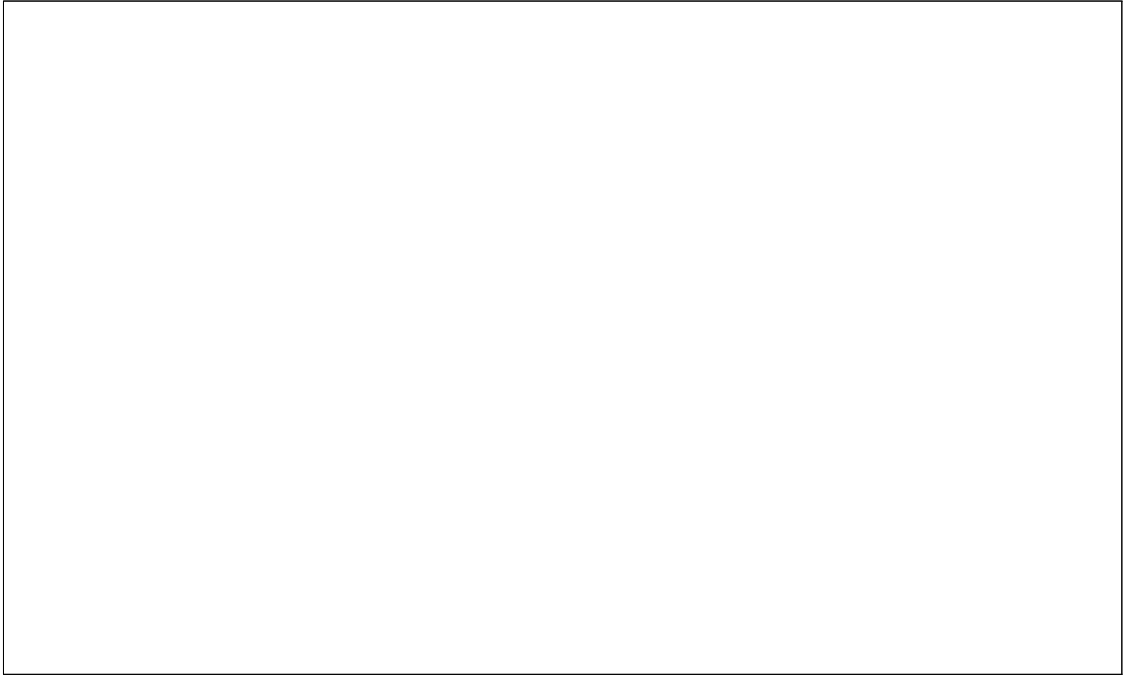
생각한 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기 때문에 긴 옷을 꼭 챙기는 게 좋을 듯하다.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가 있다면 꼭 가져오는 게 좋다. 달리는 어디를 여행하든 쓰기 좋으니까 예상한 금액만큼 달러로 환전해오기 보다는 더 환전해오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ATM으로 출금을 하려하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달러를 넉넉하게 가져와서 필요할 때마다 환전해서 쓰는 게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필리핀에서의 한 달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다. 한국에서였다면 겪어보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추억을 쌓았다. 시작은 단기어학연수였지만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얻었다. 단지 같이 수업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학생들과 더불어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선생님들까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정이 너무나도 많았던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은 수업 시간 외에도 우리 학생들과 매번 수다를 떨고, 노래 부르고, 서로 놀리면서 정이 많이 들었었다. 특히나 필리핀 사람들에게서 한국인으로써 너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았기에 이제 필리핀은 내게 너무 고맙고 소중한 추억의 나라가되었다. 밖에서 만난 그들은 항상 먼저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해왔고, 관심을 보여줬다.

영어 실력적인 면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은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은 얻고 가는 것 같다. 향후에도 영어 회화공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어학연수는 영어실력을 향상 시킬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시티투어 때, 지프니 탑승	학생 26명이 다 같이 첫 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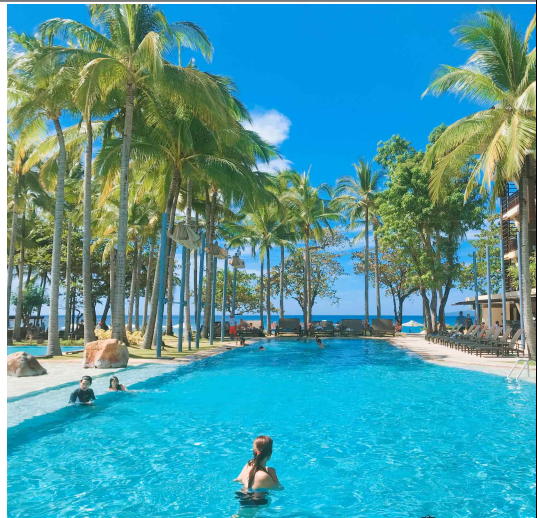
요트투어



크리스마스 바베큐 파티



마닐라 투어



안바야코브